

첨단 전동화 기술로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기아 '더 기아 EV3 테크 데이' 개최 아이 페달 3.0 등 다양한 경험 제공

기아가 최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파이팩토리에서 '더 기아 EV3 테크 데이(The Kia EV3 Tech Day)'를 개최하고, 전기차 사용 경험을 향상시키는 첨단 전동화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E-GMP 기반의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인 더 기아 EV3(The Kia EV3, 이하 EV3)의 상품성과 기아의 우수한 전동화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아이 페달 3.0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 ▲THIN HVAC(공조 시스템)·차세대 열관리 시스템 ▲신규 전기차 전원 제어 등 더욱 만족스러운 전기차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첨단 전동화 기술=EV3는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회생제동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아이 페달 3.0'이 적용됐다. 아이 페달 3.0은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 감속, 정차가 가능한 아이 페달(i-Pedal) 기능을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작동시킬 수 있다. 아이 페달 3.0은 0단계에서 3단계까지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스티어링 휠 좌측의 페달 시프트를 1초 이상 당기면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한 회생제동 단계별 감속도를 기반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다.

EV3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이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돼 한층 경제적이고 편리한 운전이 가능하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회생제동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운전자가 가속



아이 페달 3.0은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 감속, 정차가 가능한 아이 페달(i-Pedal) 기능을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작동시킬 수 있다. EV3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이 현대차그룹 최초로 적용돼 한층 경제적이고 편리한 운전이 가능하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회생제동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운전자가 가속



기아는 최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파이팩토리에서 '더 기아 EV3 테크 데이(The Kia EV3 Tech Day)'를 개최하고, 전기차 사용 경험을 향상시키는 첨단 전동화 기술을 선보였다. <기아 제공>

양한 내비게이션 기반 정보를 활용해 ▲과속 카메라 ▲좌/우회전 ▲커브길 ▲속도제한 ▲방지턱 ▲회전교차로 등 여러 상황에서 자동으로 감속한다.

EV3는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열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히트펌프 성능 향상으로 난방 성능을 더욱 높였다.

기아는 EV3에 새로운 전기차 전원 제어를 적용해 유틸리티 모드, V2L 등 전기차 특화 기능의 사용성을 개선했다.

기존 'OFF-ACC-IGN-READY(시동이 걸린 상태)'의 4단계로 이루어졌던 전기차 전원 제어 구성을 'OFF-POWER ON-READY'의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고전압 배터리를 READY 상태 뿐만 아니라 POWER ON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최적의 주행 성능 구현=기아는 첫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인 EV3에 최적의 주행 성능을 구현하고자 넉넉한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탑재하고, R&H 성능과 NVH 성능도 강화해 주행감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EV3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주행 가능 거리 가이드'를 적용해 고객이 전비에 도움이 되는 운전을 하도록 돕는다.

EV3는 공기저항계수 0.27을 달성해 동급 최고 수준의 공력성능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헤드램프 및 전면 범퍼 곡률 개선 ▲휠 캡 리듀서 적용 ▲전·후륜 휠 아치 후방 곡률 증대 ▲휠 형상 최적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디자인 및 각도 개선 등이 이뤄졌다.

기아는 EV3에 동급 최대 수준의 81.6kWh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 501km를 달성했다. (*공로인도모드, 17인치 기준)

이밖에도 급속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충전 중 배터리 온도를 낮추는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EV3는 노면 소음과 풍절음을 포함한 고주파음이 실내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차량 전륜 멤버에 프레임 스테이브 브라켓을, 후륜 멤버에 다이내믹 댐퍼를 적용했으며 멤버 부싱 특성을 개선해 노면 소음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임재만 기자

현대차·기아, 전기차 충전 생태계 개선 나선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전기차 충전 상호운용성 공동협력

현대자동차·기아가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손잡고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구축해 사용자 친화적인 전기차 충전 생태계를 만든다.

현대차·기아는 22일 "최근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전동화 시험센터장 한동희 전무, 한국전기연구원 김남균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려 다양한 사업자들이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에 뛰어들면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해석 차이에 따른 호환성 문제

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전 시 충전 시작에 실패하거나, 충전 중 의도치 않게 충전이 중단되고 또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전기차 생태계의 다양한 완성차 및 충전기 제조사 간의 상호운용성 평가를 통해 한층 높은 전기차 충전 호환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는 각각의 제조사별로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별적으로 충전 호환성을 확인하

던 방식에서 벗어나 완성차 제조사와 충전기 시스템 간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양방향으로 직접 시험하는 한 단계 높은 상호운용성 검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차·기아는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과 초기 운영 ▲적합성 시험 기준 확립 및 신기술 적용 ▲시험장 운영 방안 개선 및 결과물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활동 ▲시험 참여자의 국내외 확대 ▲전기차 충전 시스템 관련 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을 추진한다.

우선양측은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한국전기연구원 안전분원에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주관으로 운영돼 중립성을 갖춘 충전 호환성 검증 및 평가기관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재만 기자

현대차 '2024 TCR 월드투어' 4라운드 우승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2024 TCR 월드투어' 4라운드 브라질 레이스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올해 두 번째 포디움 정상에 올라섰다.

현대자동차는 22일 "더 뉴 엘란트라 N TCR(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지난 19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브라질 상아울루 소재 '인터라고스 서킷(Interlagos Circuit)'에서 개최된 '2024 TCR 월드투어' 4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더 뉴 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 출전한 노버트 미첼리스(Norbert Michelisz) 선수는 21일 치러진 두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



과하며 우승했다. /임재만 기자

현대차·기아,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기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에 앞서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을 점검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점검 항목은 ▲냉각수 ▲오일류 ▲위셔액 ▲배터리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 ▲공조장치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이며, 점검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셔액 1통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현대차 고객은 전국 1천237개 블루핸즈, 기아 고객은 전국 758개 오토큐를 방문해 무상 점검 쿠폰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으면 된다. (현대차·기아 지역 서비스센터 미시행) /임재만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